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2(‘23-10) | 2023. 9. 27.

직업군인 생활 안정과 전역 후 복지에 대한 제언
김기호

국가정체성 재확립과 자유의 가치 수호
김학민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변화 전망
박재완

직업군인 생활 안정과 전역 후 복지에 대한 제언

김 기 호

(강서대 국제교육교류원 초빙교수)

필자는 대령으로 전역한 지 11년이 넘는다. 33년 군 복무 동안 35번 이사를 했는데 전역 후에도 벌써 7번째 이사를 했다. 여군 장교로 있는 딸의 자녀 2명을 돌보고 있어서 딸이 전속할 때 마다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각각 1시간이 걸리는 외손주 2명의 등교와 하교를 담당하고 있다.

딸은 중견장교로 부대에서 거의 생활을 다 하고 있고 아이들은 우리 부부가 돌보고 있음에도 중령 진급에서 떨어졌다. 이제 전역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지난 8월말에는 전남 광주로 가서 친한 집안의 후배 대위 장교의 혼인예배에 참석 후배 가정을 축복하는 대표기도를 했다.

신랑은 중동부 전선 GOP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전역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 동생도 육사 2기 후배로 대위인데 그 또한 전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는 한 집에서 2년 터울로 육사를 보내서 명망있는 집안

으로 소문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장교 아들 2명이 모두 전역하겠다고 하니 어머니의 실망과 좌절이 너무 깊으셨다.

필자는 신랑에게 전역 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럼 무엇을 준비하는지 물어보았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럼 보수가 높고 복지대책이라도 많고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신부와 혼인 준비하는데도 GOP 중대장이다 보니 겨우 나와서 혼인식 참석하기 바빴다고 한다.

하긴 필자도 33년 복무동안 35번 이사했고 2 딸들은 진해-순천-대구-양구(2회)-화천-원주-서울 등 중학교 입학까지 8번 전학을 했다. 양구와 화천에 근무할 때는 피아노 레슨조차 선생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영어 과외나 학원은 너무 산골짜기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었다.

필자가 대령이 되어 한미연합사에 근무해보니 미군 대령은 군에서도 전역 후에도 직장이 보장돼 있었다. 국방부와 보훈부(정확하게 제대군인부)에서 협업해서 현역시절과 전역 후에도 취업 알선 등 생활이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진급 등 진출하는데 가장 큰 권한은 아내(Wife)가 쥐고 있다. 미군 중전급 이상 장교들은 “아내가 나의 상관입니다(Wife is my Boss)”라곤 한다.

미군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 직업 군인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처우 및 보상이 대단하다. 미군은 병장만 돼도 혼인해서 영외거주하면서 살 수가 있다. 부사관들도 생활에 그다지 쪼들리지 않는다. 대령 계급 명칭이 Colonel 인데 식민지의 한 주(Colony)를 통치하는 계급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가 된다. 과거 지방자치 이전에는 계엄 시 대위 소령이 군수 및 시장을 맡았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존무비(文尊武卑; 문관은 높이고 무관은 낮춤)의 잘못된 악습이 있어왔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과거 고려시대 무신의 난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128만 현역과 762만 예비전력과 침예하게 무력 대치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무관집단이 가장 우수하고 예우 받아야 당연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는 군복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군을 잘 모르는 정치가들이 군사문제를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즉, 포퓰리즘으로 결정하다 보니 병의 복무월수가 급기야 18개월로 단축됐다. 겨우 전투병이 될 만하면 전역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전투력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만

들어 놓았다. 그런데 입영장정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작년 말로 50만도 안 되는 48만으로 굳이 축소됐다. 현역 중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현역 복무 부적격으로 조기 전역하는 자원도 매년 4, 5천여 명 된다. 거기에 장교, 부사관 지원은 급감하고 전역은 급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병장 급여가 200만원까지 인상된다. 그러다보니 복무월수는 24개월이 넘는데 급여는 병장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 ROTC 등 초급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 자원을 없애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6천명쯤 의경자원을 달라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안보 환경하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열외가 없어야 한다. 산업체나 타 기관에서 정히 필요하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지 못하면 일체의 공직에 나갈 수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된 연후에야 군 생활의 안정과 전역 후 올바른 복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필 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인 생활안정과 전역 후 복지대책이 열악한 것이다. 만약 필자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직업군인들을 초일류 대기업보다 더 좋게 예우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몰려오게 할 것이다. 여성들의 혼인 대상자 1위가 명실공히 직업군인이 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단지 헛된 꿈이 아니었으면 한다.

국가정체성 재확립과 자유의 가치 수호

김 학 민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선문대학교 교수)

불필요한 논쟁의 감속화

한동안 정윤성 공원 조성과 흥범도 흥상 육사 이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국가 안보와 색깔론이라는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환경 적응력이 뛰어났던 사람들과 편향적 사고에 의해 찬반 의견이 개진되면서 쟁점화 되었다. 원래 없었던 것이고 자체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 의해 설치되다 보니 원점으로의 회귀이나, 색깔론이나 하는 논란이 생긴 것 같다. 취지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는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과도한 영웅화도, 폄훼화도 옳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핵심적 논점은 옛날이나 현재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간 것은 북한이며,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에겐 구소련과 중국도 포함되며, 이들은 김일성 이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주적의 조종자들이었다.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7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수많은 도발과 구소련, 중국, 러시아의 위협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며, 김일성 독재세력에 대해 맞서 싸우고, 6·25 전쟁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 영웅과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동안 북한의 김일성 3부자에 의한 도발로 희생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도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표정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말하였다.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언할 정도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향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보훈 단체들의 시각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심초사하였던 그들이 뭉쳐서 나서야 할 때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을 지키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슈화가 진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분야는 한동안 회색지대에서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정책 및 외교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국방의 목표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며, 재향군인회의 목표도 첫째가 국가안보요, 둘째도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이며, 셋째도 국가안보와 수호를 위한 외침이다.

세계는 냉전과 해빙기를 거쳐 이제 신 냉전이 다시 도래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현재까지 해빙기가 온 적은 없었다. 우리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지키려 한 것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대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현재 우리는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대적 사명에 직면해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흔들렸던 자유대한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다. 한미동맹의 우호적 관계 복원과 자유정신의 계승 및 재정립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25전쟁(1950.6.25 ~ 1953.7.27)은 1,500년 이후 발생한 국제적 전쟁 가운데 군인 사망자가 일곱 번째로 많았던 전쟁이다. 한국군 사상자 60만 9천여명, 유엔군 54만 6천여명, 중공군 97만 3천여명 등 인명 피해가 총 300만명이었다. 민간인 피해자는 100~200만여명이다. 1953년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주민 피해자는 110만명이라고 한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또한 분단이후 북한 김일성 3부자의 각종 도발로 인해 발생한 국민피해는 사상자 496명(사망 312, 부상 184), 행방불명 15명, 납북 370명(122명 복귀), 미확인 759명이다. 간접적 원인제공자로는 중려도 해당된다.

항일투쟁에는 2가지 유형이 있었다. 한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을 주도한 민족주의자(민족지도자)와 조국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투쟁을 한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이다. 소련은 일국 사회주의 건설이 목표였다. 대다수 민족주의자들은 지주계급 및 식자들이었으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후손양성과 자금조달 및 지원, 국내에서의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이들이다. 공산주의자에게는 민족이 없다. 민족은 자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민족이라는 말을 배척하였으며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김일성민족주의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홍범도와 정율성의 행적과 수용의 임계점

광주에서 출생한 정율성(1914.7.7.~1976.12.7.)은 중국 공산당, 북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중공 국적의 공산주의 음악인, 작곡가이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취득 후 《팔로군행진곡》을 포함하여 8곡으로 구성된 '팔로군 대합창'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훗날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되었고, 북한의 인민군가도 작곡하였다. 그는 사후 중국 공산당이 안배한 바바오산의 혁명투사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비문에는 "중국 인민은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일제 침략자들을 몰아냈고, 낡은 중국을 뒤엎었으며, 새 중국을 건립했다"고 새겨졌다. 중국의 인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홍범도(1868.8.27 ~ 1943.10.25)는 3·1운동 직후 헤산진 일본군 수비대 습격(최초 국내 진입작전), 함남 갑산군 금정 주재소와 일본 관공서 습격(9월), 평북 만포진에서 일본군 70여 명 살상(10월), 봉오동(1920.6.7) / 청산리 대첩(1920.10.21 ~ 26) 등에 참가하였다.

청산리전투 이후 독립군은 각자도생하기 위해 일본군 포위망을 뚫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러시아와 한인사회당 대표 이동휘의 모략에 의해 스보보드니(한국말로 자유시)에서 독립군 600명이 포위 사살 당했으며, 생존한 428명은 죄수부대로 편성되어 우수문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다. 참변의 원인은 무장 해제 라기 보다는 붉은 군대로의 강제 편입이나, 거부냐 이었다. 이후 홍범도는 군사재판에서 고려혁명군사법원 재판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배신자라는 낙인에 따라 테러도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로로 이동휘는 100만 루블을 받았으며(코민테른 자금 사건), 홍범도는 고려혁명군의 제1대대장/한인 빨치산(의용군) 대장이 되었다. 이후 홍범도는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에 참여하는 한인 대표로 선발되어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레닌·트로츠키와 면담까지 했다. 레닌은 홍범도에게 혁명정권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로 금화 2,000루블, 군복 한 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은제 마우저 C96 권총을 선물로 줬다.

함의 및 시사점

정율성의 생가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은 2018년 48억 원이 투입됐고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정율성이 한중 우호 관계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냉전해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적 추진에 대한 오해로 판단된다. 중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위해 협력 차원의 공원 조성이란 자연스럽지 않다. 자유 민주 항거의 상징인 광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취소하고 명예로운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고언 해 주는 것이 향군의 도리인 것 같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에 가입(1927)을 했고, 자유시 참변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한 레닌의 포상금과 권총, 군복을 하사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의 홍상 복장도 그 군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이주(1937)해서 사망(1943)할 때까지 연금을 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유시 참변 당시 밀고자나 배신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지도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나 다름없다. 모략을 책동했던 이동휘도 현장에 없었다. 지도자는 현장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동서고금 똑같다. 또한 동족들의 죄를 감면시키기 위해 재판위원을 했다는 말도 자연스럽지 않다. 붉은 군대에 대한 공과 없이 레닌이 그에게 포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한때 항일투쟁을 했던 것은 맞지만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영웅으로 천수를 누렸을지 모른다. 볼셰비키 혁명군을 우리는 빨치산이라고 부른다. 김좌진 장군을 빨치산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유독 홍범도에게 당시 개인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평가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흥분하고 격한 반응 자체가 원인 제공자이다.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그리 흥분할 필요는 없다. 육사에 꼭 필요한 홍상도 아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독립단체에서 후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지속은 불필요할 것 같다. 국민들은 신영복이나 그의 글씨체(신영복체), 김원봉을 좋아하기도 존경하지도 않는다. 국가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노력과 향군의 자유수호 의지는 약해질 수도 없으며, 타협할 수도 없다. 자유의 가치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변화 전망

박 재 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국민대학교 교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하여 각종 투발수단을 쉼 없이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투발수단의 능력 향상은 핵능력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북한의 핵전략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북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선제적·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천명했다.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사용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임의의 상황과 시간, 장소,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핵전략도 더욱 적극적·선제적·공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핵전략의 핵심은 핵 교리(nuclear doctrine)와 핵능력(nuclear capability)이다. 핵 교리는 핵정책, 핵무기의 용도, 사용원칙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의 핵 교리는 이미 핵무력정책법으로 모든 것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전략의 또 다른 한 축인 핵능력은 핵탄두 수량, 핵물질, 투발수단 등 핵 태세(nuclear posture)와 핵전력, 관련 기술, 실전배치 상태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핵보유국인 P5(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의지와 다양한 능력면에서는 더 우월한 부분도 많다.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무장국(P5+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확장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과 의지적인 측면에서 더욱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화된 핵능력에 기반 한 가장 핵심적인 핵전략과 핵 교리는 선제공격 채택 여부이다. 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을 기본으로 2차 응징보복의 두려움에 기반해서 핵 억제전략이 작동하는데,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 교리를 채택한 상태다. 핵무기 사용조건에 비추어 당장 남한을 향해 핵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 변화에서 핵심은 핵무기를 제1사명인 억제(deterrence)에 속박하지 않고, 선제적·적극적·공세적으로 제2사명인 전쟁수행능력(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변화 전망

북한의 핵무기 지휘통제체계는 핵무력정책법 3항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3항 1에는 북한의 핵 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명시하면서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3항 3에는 핵 지휘통제체계가 위협에 처할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하면서 ‘위임분권형 또는 제한분권형 핵 지휘통제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북한은 ‘하이브리드(hybrid) 핵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핵무기 지휘통제체계가 핵능력 고도화와 더불어 변화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핵 지휘통제체계가 핵무기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딜레마(dilemma)가 존재한다. 핵사용 명령이 접수되면 언제나(always)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절대(never) 아무렇게나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하거나 억제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임해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하지만, 내부 권력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선불리 위임하는 것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2023년 3월 27일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를 통해 공개한 ‘화산-31’ 전술핵탄두이다. 화산-31 전술핵탄두는 평시 핵 투발 수단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격명령을 접수하면 어떠한 투발수단에도 장착이 가능한 카트리지 형태의 호환성(compatibility, interchangeability)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탄두 형태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카트리지 형태의 화산-31 핵탄두는 아무런 통제 없이 무분별적인 핵사용을 통제하는 ‘절대(never)의 핵 지휘통

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평시 핵탄두를 분리 보관하여 투발수단에 결합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유사시 즉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핵무기(핵탄두+투발수단)를 배치할 수 있고, 핵무기 지휘 통제적인 측면에서는 위임분권형 또는 제한분권형 핵 지휘통제보다는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적 핵 지휘통제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의 능력(통신, 지휘권한, always/never 통제)과 핵무기 관리 등이 제한적이라면 사전지휘이양모델(pre-delegation model)과 지휘이양모델(possible devolution model)이나 이 두 모델의 장단점을 취합해 하이브리드지휘통제모델(possible hybrid NC2 model)을 적용할 것이다. 물론 단순히 핵탄두 수량, 투발수단의 핵능력만으로 이러한 핵 지휘통제체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려요소 중에 화산-31의 카트리지 형태의 핵탄두는 중앙집권의 핵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하는데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인공위성이나 정찰위성 시험발사 등을 통해 각종 통신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고체연료기반 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성공과 더불어 2023년 9월 8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은 3,000톤급으로 1,800톤급인 로미오급 개량형이다. 이 잠수함에는 대형 4개와 소형 6개의 SLBM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있다. 미니 SLBM과 북극성-1, 3형과 전략핵순항미사일 등을 발사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TEL)를 활용한 투발수단과 KN-23, 24, 25, 열차기동, 호수의 수중발사 등 각종 투발수단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투발수단 플랫폼의 다양화는 운영유지에 제한사항을 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찰·감시자산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투발수단 플랫폼의 다양화 또한 핵 운용 전략과 핵 지휘통제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도 눈 여겨 봐야 한다. 계급장 정치로 통하는 북한 군부 길들이기를 통해 어느 정도 북한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북한 군부의 장악력이 붕괴될지 선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북한의 동태를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북한은 핵능력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한 의도와 기술적인 측면 등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함께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에 관련된 세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가적인 모든 역량과 노력의 결집으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북핵 대응책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